



유럽총연합회 2015년도 정기 총회 6월 27일~28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 예정

고려대학교 교우회 유럽총연합회는 2015년도 정기총회를 6월 27일 및 28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대의원인 회장단, 자문위원단, 상임이사단, 운영이사단으로 구성되며 전년회기의 사업보고, 결산승인, 신년회기의 사업계획, 예산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외에 회장단 회의 상정 안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유럽총연 제 4대 회장과 감사를 선출, 유럽총연합회 제4기를 출범한다. 정기총회 관련 문의 및 등록은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메일 info@kuaa.eu ▲전화 +49-178-5804281

교우친선 골프대회도 가져

유럽총연은 2015년도 정기총회에 참가하는 대의원 및 각국 교우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골프행사를 유럽총연과 영국 교우회 공동 주최로 6월 27일 13시 부터 런던 근교의 Foxhill 골프 클럽에서 갖는다.

영국

춘계 골프 모임 상황

영국교우회(회장 김갑수 행정 84)는 5월 16일 영국교우회 골프모임을 갖고 교우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임시창, 장익환, 이용남, 문정주, 최재명, 김철주, 김형채, 김갑수, 진기천, 류상영, 제정용, 조창기, 강태운

교우 등 총 13명의 교우가 참석한 이번 골프모임에서는 6월 말 런던에서 개최 예정된 유럽총연합회 2015년도 정기총회를 위한 준비모임의 성격도 가졌다.

골프 모임에 참석한 교우들은 이번 유럽총연합회 2015년도 정기총회가 런던에서 열리는 만큼 최선의 준비로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것을 다짐했다.



프랑스

2015년 춘계 고연전 개최

프랑스 교우회(회장 지영섭 사회 81)는 2015년 4월 25일 춘계 고연전을 개최하여 양교의 친교를 돈독히 하였다.

양교에서 12명씩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고연전 결과는 연대측을 20타 가량 압도하였으며, 장경환 교우가 이글, 최진혁 교우가 최저타 기록 등 앞선 실력을 증명하였으나, 더블페리오 방식 규정상 아쉽게

도 0.4점 차이로 석패하고 말았다.

올해부터는 호골회 간사를 맡은 정규호 교우(경영대학원 09)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연대측은 고연전 후에도 추가적인 공동모임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해 양교 우정이 배가되었다.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2015년 새로이 프랑스 교우회에 가입한 신입회원을 초청하여 회장단과 함께 오찬을 갖

고 프랑스 지부 가입을 따뜻하게 환영하였다.

지난 4월 17일, 한식당 다미에서 이명조(불문 82), 백승주(행정 박사 11), 송혜령(영문 93) 교우 등 신입회원들을 지영섭 회장, 장만익 부회장, 홍래형 총무, 구윤정 총무가 맞이하여 그간 교우회 활동을 소개하고 신입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였다.

특히, 연합뉴스 유럽총국장을 맡고 있는 이명조 교우는 이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특파원으로 이미 근무한 경력이 있어 교우회 프랑스 지부에 친분이 있는 인연을 알렸고, 백승주 교우는 행정학과 박사과정에서 쌓은 친분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송혜령 교우는 같은 과 선배인 장만익 부회장과 추억을 나누며, 앞으로의 적극적인 교우회 활동을 다짐하였다.



이탈리아

이탈리아교우회(회장 이병운 전자 85)는 4월 30일 교우회 모임을 가졌다.

교우 10명 (가족 포함 총 14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준비된 이

번 모임은 또한 오랜 동안 이탈리아교우회 총무로 수고해준 이경아(생명과학 98) 교우의 송별회도 겸해서 진행되었다.

이경아 교우는 밀라노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러시아

러시아교우회(회장 김영진 노문 86)가 지난 6월 5일(금) 모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에서 유럽총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모범 지부로 선정되었다.

1994년에 출범한 러시아

교우회는 그동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공관 및 상사 주재원으로 활발한 활동으로 보여 주었는데, 김영진 회장은 이번 모범지부 선정으로 계기로 향후 상페테스부르크(구 레닌그라드)의 교우들과 레닌그라드 대학의 교환학생들과도 연계할 계획을 밝혔다.

독일

2015년 춘계 야유회 개최

독일 교우회(회장 강성운 경제 78)는 6월 14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호호타운스 산행으로 2015년 야유회를 대신하였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산행은

왕복 4시간 정도 걸렸으며, 산행 후에는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교우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호골모, 서울대와 골프시합

독일 교우회 내에서 골프를 즐기는 교우들의 모임인 호골모(회장 이상화 독문 82)는 오

는 6월 21일 재독 서울대 동문들과의 골프 시합을 앞두고 있다.

매년 연대와 함께 골프 고연전을 가져왔으나, 서울대 동문들과의 시합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맹렬한 호랑이 정신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한편, 골프 고연전은 8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110년 역사를 넘어, 다시 출발하는 고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모교와 교우회가 공동주관하는 '개교 110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가 지난 5일(화) 오전 10시30분 모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선희(법학65) 교우회장, 염재호(행정73) 모교총장, 김재호(고언13회) 법인이사장, 이양섭(상학57) 전 교우회장, 이기수(법학65) 전 모교총장을 비롯해 600여 명의 고대가족이 참석했다.

김재호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교 110주년을 맞은 올해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염재호 총장은 "110년을 넘어 우리 고려대는 새로운 미래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 110년 전 '교육구국'의 사명을 주창했던 근대화의 선구자들처럼 21세기를 개척해야 하는 민족적 소명의식을 갖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직면

해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고려대가 미래의 꿈과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변화는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와 재앙이지만, 개척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와 축복"이라며 고려대가 끝없는 혁신으로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기를 기대했다.

주선희 교우회장은 "모교 개교 110주년을 맞이해 우리가 한국 대학 개혁의 선두주자로 앞장서 달려가야만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 재단, 대학, 교우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교발전의 획기적인 중흥을 이루어야만 한다"며 "고대 구성원 모두가 세계속의 명문대학으로 설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에 일심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고려대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됐다.

마동훈 고려대 미래전략실장은 앞으로 대학은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지식의 창조자 역할로서 21세기형 지식 창조를 할 것이며 새로운 지식으로 사회를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연구, 행정 각 분야에서 자율, 신뢰, 책임이 동반된 미래 교육혁신의 출발에 고대 구성원과 함께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교우회 모범지부로는 유럽총연합회의 러시아 교우회를 포함하여 포항, 시카고, 필리핀 교우회가 선정되었다.

4·18 55주년 기념 행사 열려



4.18기념 마라톤

모교는 4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고려대 4·18 기념탑 앞에서 '헌화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재호 총장, 주선희 교우회장, 김면중 4월 혁명고대 회장, 김윤태 석주회장, 이정구 교수의회 의장, 김재년 직원노조 지부장, 서재우 총학생회장이 기념탑 앞에 대표로 헌화했다. 이외에도 4·18 고려대 학생의 거 참가 교우들이 함께 참석해 4·18 학생 의거로 희생된 넋을 기렸다.

염재호 총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55년 전에 쓰러져간 선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4·18 의거는 4·19혁명에 불을 붙이게 됐다"며 "55주년이 지나 4월 혁명을 기억하는 농도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달라질 수 없는 고려대의 개척하는 정신으로 의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정의·진리의 선도에 섰던 고려대는 현

재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 4월의 정신이 고려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대와 지역을 넘어 멀리, 그리고 깊이 퍼져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선희 교우회장은 이 자리에서 "안암동 고려대학교 교문을 박차고 나가 광화문에서 한국 민주화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된 4·18의거가 55주년을 맞았다. 모교인 고려대학교가 민족 사학의 효시로 한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다"며 "4·18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개척하는 지성과 개혁하는 고대에 모든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이 뜻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교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사회봉사단이 후원한 4·18 희망나눔 마라톤은 오전 9시 30분 열렸고, 오후 1시부터 열린 구국대장정이 이어졌다. 이날 약 3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 유럽총연합회 2015년도 정기 총회 공고

유럽총연 정기총회

일자 : 2015년 6월 27일~28일
장소 : 영국 런던 로열버크셔 호텔



교우친선 골프대회

일자 : 2015년 6월 27일
장소 : 영국 런던 폭스힐 CC



김영진 (노문 86)
러시아 교우회장

저희 러시아교우회가 지난 5월 5일 모교 개교 110주년 기념행사에서 고려대학교 교우회 해외모범지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모범지부 선정은 러시아교우회가 유럽총연합회 타 지역 교우회보다 뛰어나서 모범지부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러시아교우회는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교우회 활동을 강화하며 유럽총연합회와의 협력관계도 심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한러수교 원년인 1990년 이후 많은 저희 동문들 또한 공관직원, 상사직원 및 학생 신분 등으로 이곳 모스크바를 다녀가셨습니다.

저 또한 1991년 학생으로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 모스크바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공식적인 동문회는 없었지만 주재 근무를 하였던 선배님들과 저희 학생들이 모스크바에 하나뿐이던 한국식당,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식당인 평양식당에서 즐거운 모임을 갖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 MBC 모스크바 특파원을 하였던 노문 74 학번 선동규 선배님, 대사관에 계셨던 김영환 선배님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후 1994년도에 공식적으로 모스크바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출범하였으며, 특히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만 10년 동안 모스크바에 계셨던 이세훈(식공 69) 선배님께서 러시아교우회의 정신적 지

주 역할을 해주시며 러시아 교우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오던 러시아교우회가 2009년 유럽총연합회의 발족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교우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2009년 4월 1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총연합회가 출범하던 그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모스크바 교우회의 특징은 단기체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이 공관



2011년 이기수 총장 모스크바 방문

모범지부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및 상사의 주재원들이십니다. 오랫동안 모스크바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 대비하여 소수입니다.

러시아의 제2도시인 썬베제르부르그(구 레닌그라드)에도 교우들이 몇 있으며, 고려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레닌그라드 대학교에 학생들이 교환학생

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러시아는 낯설고 아주 추운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우리에게 러시아라는 나라가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함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러시아에 있으면서 느끼는 러시아에 대한 느낌은 고려대학교의 그것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비약이 있지만, 이곳 사람들도 정이 많고, 화끈하며, 술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 모범지부 선정을 계기로 저희 러시아 교우회 교우들은 다시금 한마음으로 교우사랑과 모교발전의 초석 역할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러시아교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우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더불어 유럽총연합회 교우 모든 분들과 소속 교우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교우회를 떠나며

프랑스교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만익입니다.

저는 무역보험공사 파리지사장 3년임기를 마치고 7월초 귀임예정입니다.

부임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예술의 도시이자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의 3년의 모든 순간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

낯설고 생소함은 지금 돌아보아도 가슴 설레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좋은 시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단 지사장으로서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외국 생활의 고단함을 매 순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파리 생활에 차츰 적응되어갈 때, 프랑스교우회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교우회 활동에 열심이지 않았던 제가 파리에서 교우회와의 만남은 교우들의 그 두텁고 끈끈한 정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기다려지는 모임, 만나면 그저 좋기만 한 교우회 모임을 통해 외국 생활의 피곤함을 달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보는 안목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교우회의 모든 선배님과 후배 교우들은 언제나 상대를 위하는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최혜자 선배님, 서정호 선배님, 신근수 선배님 등 대선배님은 물론 장경환 선배님, 지영섭 회장님 등 교우님들이 모교와 교우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에서 교우에 실천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귀임하더라도 저는 프랑스교우회의 명예회원으로 프랑스 교우들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파리의 3년 생활에서 또한 기념비적으로 다가온 사건은 2013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총연합회 정기총회와 친선 체육대회였습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던 유럽총연합회 양해경 회장님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의 교우들이 속속 파리의 행사장으로 모여드는 그 감동적인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늦은 밤까지 '교우 친선의 밤' 행사를 치르며 마치 가족들이 오랜 시간 만에 다시 만난 것과 같은 정을 나누는 모습은 우리 고대만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튿날 체육대회를 마치고 다시 각국으로 돌아가는 교우들이 그렇게 애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총연합회 행사를 치르며 뵈었던 양해경 회장님, 그리고 유럽총연 임원들이 보여주신



장만익 (영문 87)
프랑스교우회 부회장

교우회를 향한 헌신과 열정은 고3 학력고사를 마치고 학교를 선택한 저의 결정이 자랑스러운 것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해 주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총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교우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고대정신을 가슴으로 새기며 앞으로도 고대인으로서 자부심 가지고 멋지게 살고자 합니다.

유럽 계시는 여러 선후배님들과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유럽총연합회 2013년도 정기총회

유럽총연합회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교수들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고 이들 교수간의 교류를 위하여 "교우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교우 릴레이는 글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유럽총연합회 교수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김인홍 교수, 영국의 임시창 교수, 프랑스의 신근수 교수, 러시아의 이세훈 교수, 스웨덴의 유명연 교수, 오스트리아 김신자 교수, 터키 김성렬 교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민경준 교수, 쿠웨이트 박정길 교수, 우남준 명예회원, 프랑스 서정호 교수, 독일 박돈희 교수, 네덜란드 김영원 교수, 프랑스 김재호 교수, 우크라이나 박승현 교수, 오상덕 명예회원, 나이지리아 정병훈 교수, 모교 교수 김세원 교수, 헝가리교우회장 이상일교우, 정재근 명예회원, 페루 교우회장 김태원 교수, 사우디아라비아 백재현 교수, 카자흐스탄교우회장 김상욱교우, 우즈베키스탄 남준성 교수, 벨기에 유승철 교수, 스페인 권석주교우, 스웨덴 형민우 교수, 민석기 명예회원, 영국 한충석 교수, 김종훈 명예회원, 프랑스 지영섭 교수, 스웨덴 석갑인 교수, 독일 한운석 교수, 폴란드 남종식 교수, 김용학 명예회원, 스페인 이기욱 교수, 오스트리아 이은영 교수, 양원목 명예회원, 독호회 회장 이상목 교수, 전 주독일 대사 김재신 (정외 75)교우에 이어 네덜란드 김종식(불문 83) 교우가 바톤을 이어 받았다.

유럽총연합회 선배님과 후배 교우들에게 인사드립니다.

2009년 4월 1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교우회 유럽총연합회 출범식에 최태순 선배님과 함께 참석한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로만 듣던 대선배님들을 직접 뵙고, 또 유럽 각국에서 참가한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우회의 그 끈끈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삶을 막 시작해 하루 하루를 1년처럼 살아가는 세계 유럽총연합회 출범식은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시아나 항공에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2004년초 주재원으로 네덜란드로 발령 받아 네덜란드 땅을 밟은 지가 벌써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10년이 넘었습니다.

4년 임기를 마치며 귀국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제 자신을 현지인화 하는데 전력질주를 해온 지도 어느덧 7년이 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심적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재원의 경우 회사라는 조직으로부터 주택, 차량, 그리고 교육비등 현지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데, 현지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 입장이 됩니다. 마치 실직한 것과 같은 기분의 저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교우 릴레이 (4)

네덜란드 교우회에 대한 단상

였습니다.

최저점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각오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하루 하루 전장과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경쟁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고대정신과 네덜란드 교우회였습니다.

'불가능에 대한 도전과 성취'라는 도전 정신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네덜란드 교우들과의 만남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유쾌한 휴식과 새로운 동력을 얻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교우회는 이웃 독일이나 프랑스 교우회보다 교우수는 작지만 교우들간의 친목활동과 상호 협조는 다른 나라의 교우회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암스테르담과 헤이그가 차로 1시간 거리여서 교우들과

의 만남은 정기 모임이 아니라도 언제나 마음만 통하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네덜란드 교우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교우회는 1982년 정승욱(사학 56) 선배님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영신(행정 69), 최태순(정외 69) 두 선배님이 30여년간 네덜란드 지부를 잘 가꾸오셔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연대와 별이는 골프 고연전,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에 온 후배들도 함께 하는 연말의 송년회 등 네덜란드 교우들은 정말 가족과 같은 두터운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으로 온 교우들은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네덜란드 OB 교우로 모임을 가지며, 한번 맺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0여년의 역사를 갖게 된 네덜란드 교우회는 네덜란드 거주 교우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자, 마치 고향집과 같은 편안함과 아늑함을 제공하고 있어 저를 포함 후배들이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덜란드 교우회의 훌륭한 운영은 제가 200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총연합회 창립총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활동



2009년 송년모임

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모교 강단에서 상당수의 수업을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해외에서 더 많이 공부할 기회를 갖고 활약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도 더 많은 후배들이 올 것이라고 내심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덜란드는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교우들의 진출을 적극 권장할 만한 국가입니다.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물류 시스템, 대부분의 네덜란드인이 영어가 가능한 점과 이들의 개방적인 성격은 우리 교우들의 특징이 '역동성과 도전정신'과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덜란드 생활이 11년인 중간급 교우회원이지만 지난 시간 네덜란드 교우회 활동을 접하고 매우 감동을 했습니다. 역시 고대인은 어디를 가나 잘 단합하고 적극적으로



2010년 신년모임

의 대학과 모교 학생들이 더 많은 교류를 했으면 하는데, 현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영향이 더 크거나 혹은 모교와 인연이 더 깊은 나라에 더 많은 후배들이 유학생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모교와 자매결연을 학교가 Erasmus와 HEC밖에 없는데, 자매학교 수를 늘려 많은 후배들이 네덜란

활동한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네덜란드 교우회는 지난 30년간의 전통과 더불어 유럽총연합회를 통해 타 국가 교우회와의 교류를 확대해, 보다 친취적이고 모교와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우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네덜란드 교우들은 교우회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우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2009년 고연골프대회